

엔터테이먼트

Entertainment

탤런트 이영아

스크린 연기 도전

‘황금사과’ ‘사랑은 아무도 못말려’ 등 두 편의 드라마를 통해 급성장한 신예 이영아(22)가 스크린 연기에 도전한다.

그는 영화사 튜브픽처스가 제작하는 공포영화 ‘귀신이야기’(감독 임진평)에 여주인공 설아 역으로 최근 캐스팅됐다.

‘귀신 이야기’는 귀신 상습 출몰 지역인 독각리를 배경으로 출사(出寫)를 떠난 다섯 명의 사진동아리 학생들이 각각 각색의 귀신들과 함께 한 섬쪽하고 기이한 하룻밤을 다룬 영화.

이영아가 연기하는 설아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귀신이 출몰한다는 독각리 사진여행에 겁도 없이 참여할 만큼 대답하면서도 귀여운 여대생이다.



MBC 새 주말드라마 ‘불꽃놀이’ 출연 한채영

“유쾌한 사랑 복수극 기대하세요”

한채영이 MBC 새 특별기획 주말드라마 ‘불꽃놀이’(극본 김순덕, 연출 정세호 김홍선)를 통해 유쾌한 사랑의 복수극을 선보인다.

지난해 ‘쾌걸 춘향’과 ‘온리유’를 통해 확실한 주연 카드로 자리잡은 그는 ‘불꽃놀이’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가슴에 불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한채영은 최근 열린 ‘불꽃놀이’ 제작발표회에서 “시놉시스를 구해 읽고 출연을 자청할 정도로 마음에 든 작품”이라며 “대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불꽃놀이’는 위장취업한 평범한 대졸 ‘백조’ 노처녀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드라마. ‘신돈’ 후속으로 13일 첫 방송된다. 한채영이 맡은 역할은 30세의 화장품 뷰티플래너 신나라.

고지식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멋진 커리어우먼을 꿈꾸지만 ‘백수’ 신세다. 7년간 사귀던 동거남에게 차인 뒤 화장품 회사에 나이를 속여 고졸 판매사원으로 위장취업한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로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캐릭터였지만 이번에는 현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라며 “나이가 들수록 맡는 역할도 더 현실적으로 돼 가는 것 같고 실제 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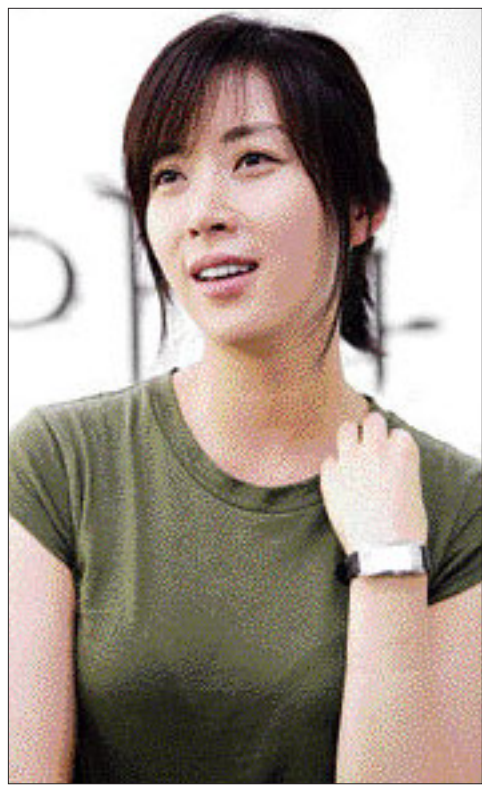
과도 비슷한 면이 많다”고 배역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명량한 캐릭터로, 본인 역시 슬픈 일이 있어도 빨리 잊는 낙천적인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드라마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처럼 털털하고 순진한 모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여겨볼 대목.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배신한 남자에게 복수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이고 당당한 여자이다.

한채영은 “실제로 경험은 없지만 만약 7년간 사귀던 남자에게 차인다면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바람둥이여서 그와 계속 사귀지는 않겠지만 당한 만큼 해주고 보내겠다”라며 웃었다.

흰색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등장해 8등신 몸매를 뽐낸 그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슬림형 원피스와 치어리더 복장도 선보여 눈길을 모았다. 하지만 색시함이 아니라 코믹하고 발랄한 모습에 초점을 맞춘 장면들, 색시미의 대명사로 ‘바비인형’이라는 별명도 얻은 그는 “여배우로서 색시하다는 말은 칭찬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색시함보다는 귀엽고 코믹한 쪽이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채영은 이 드라마에서 감지환, 박은혜, 윤상현 등과 호흡을 맞춘다.



■ 영화 ‘아랑’ 여주인공 송윤아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얼마 전 베드신을 찍지 않았으면 하는 여배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제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 설문조사)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배우이기 때문이죠.”

영화 ‘아랑’(감독 안상훈, 제작 더드림&픽처스)의 촬영현장 공개 행사에서 여주인공 민소영 역을 맡은 송윤아는 배우로서의 딜레마를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 배우로서 복잡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 속에는 연기생활 10여 년을 넘긴 30대 여배우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 있다. 관객이 원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가. 아니면 관객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연기 변신이라는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가.

이런 딜레마에서 송윤아가 선택한 작품이 영화 ‘아랑’이다. ‘아랑’은 아랑 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의문의

연쇄 살인사건을 쫓는 여형사 민소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를 촬영하기 전 감독님과 민소영 역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왜 여형사는 항상 남성적이고 터프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독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고 이 영화에서 민소영 역은 여성성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시더군요.”

송윤아는 “샌드백을 치고 발차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 영화 촬영 전 미리 체육관에서 연습했다”면서 “보도자료에는 제가 강도 높은 액션신을 선보인다고 돼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형사 역할이기 때문에 맞보기로 몇 장면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송윤아는 “스릴러 영화이기 때문에 줄거리를 미리 공개할 수는 없고 영화가 개봉하는 7월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웃었다.

주말극장가	
영화	상영극장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출입을 기념해 친구들과 놀이공원 놀러간 웬디(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는 롤러코스터를 타기 바로 직전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웬디의 예상대로 롤러코스터는 사고로 전복되고 사고를 피한 웬디 일행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메가박스,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인, 순천 프리머스, 순천 롯데
공필두 -유니버시아드 레슬링 동메달리스트로 강력한 형사에 특화된 공필두(이문식), 아버지의 병원을 구하려고 출지에 마약사범으로 몰리게 된다.	롯데, 메가박스, 밀리오레, 엔터, 제일,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월리우드
미션 임파서블3 -톰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임무를 수행하던 이단 헌트(톰 크루즈)는 작전 수행중 자신의 아내가 납치당하는 위기에 처한다.	롯데, 메가박스, 무등, 엔터,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국경의 남쪽 -차승원 주연의 멜로 영화. 민수(차승원)는 사랑하는 여인 연희를 남겨놓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롯데, 메가박스, 무등, 엔터, 밀리오레,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월리우드
맨발의 기쁨이 -어릴때 병을 앓아 지능이 8세에서 멈춘 40세의 기쁨이, 효심이 지극한 그는 어머니에게 틀린 배우가 되기 위해 미라톤에 도전하지만 곧 그의 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롯데,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월리우드
사생결단 -황정민이 마약계 거물을 사로잡겠다는 집념을 가진 지독한 형사로, 류승범이 마약 중간 판매상으로 등장해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친다.	롯데,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인, 목포 극장,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월리우드
아이스 에이지2 -평화롭던 빙하기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빙기에 접어들다. 고지대로 도망치던 맘모스 매니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맘모스가 멸종했다는 기절 충격을 소식을 듣는다.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달콤, 살벌한 연인 -30년만에 처음 연애를 시작한 한 남자. 그 남자의 애인에게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드러난다.	제일, 콜롬버스(하남), 순천 롯데, 여수 월리우드
린다 린다 린다 -문화제를 준비하던 사바키 고등학교 밴드부. 다급히 보컬을 찾던 그들은 앞을 지나가던 한국인 교환학생 송(배두나)에게 보컬을 제안한다.	광주극장
오늘의 사건사고 -여성 작가 시바키키 토모카(柴崎友香)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친구의 이사 축하를 위해 모인 8명 청춘들의 하루를 그렸다.	광주극장

당선확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선거관리, 선거관리, 무서기법, TV토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111-528-6523-4

117-603-6524

순간기열식 전기보일러

에너지효율 90% 향상

신우상사

111-528-6523-4

대한민국 전기사상 최초로 선거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폰문자발송 자동프로그램

한 번에 1000개 발송!

승리의 지름길

선거정보이용권

문의: 062-381-7702, 381-5065

117-010-4860-0883